

# 금남로에서

정재현



양양국제공항은 강원도 지역 거점공항이다. 지난 2002년 4월 3일 운영을 시작한 양양공항은 A300급 중형 항공기가 연 4만3천회 뜨고 내릴 수 있고, 연간 193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주변에 산이 없고 연중 안개가 거의 끼지 않는 천혜의 자연적 입지까지 갖추고 있다.

그런데 개항 5년을 맞은 양양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양양공항은 지난해 지방공항 가운데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지난 한해 동안 4억9천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시설관리비는 133억8천800만원에 달해 무려 128억원의 적자를 냈다.

## '양양공항 실패' 타산지석

양양공항 이용객은 개항 첫째 21만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는 5만2천명 수준에 그쳤다. 불과 4년 만에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쯤 되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양양공항의 난맥상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

교부는 개항 당시 부족한 여객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근의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을 폐쇄했다. 하지만, 양양공항은 노선 유지에 필수적인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아랫돌을 빼내 윗돌에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괴는 식

## 광주·무안공항 共滅은 피해야

의 임시변통적인 정책이 양양공항의 위기를 부른 것이다.

최근 건교부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다음달 9일부터 무안공항으로 옮기고 국내선 기능도 향후 수요를 봐가며 이전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결국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을 폐쇄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기본 입장인 셈이다.

건교부의 방침은 양양공항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성공한 정책을 본받아도 잘 될지 모르는 관에 실패로 끝난 정책을 골라 말뚝을 박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건교부는 광주공항을 폐쇄하면 모든 이용객이 무안공항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순논리에 불과하다. 광주공항의 국제선과 제주노선 이용객 대부분은 전남 동부지역과 전북권 주민들이다. 광주공항과의 접근성이 수도권이나 영남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노선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전북권 이용객은 광주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전남 동부권은 김해공항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공멸(共滅)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광주공항의 국제선은 광주시와 지역경제, 여행업계 등의 노력으로 유지했다. 지역민이 애써 따온 노선을 한 마디 상의나 논의도 없이 빼앗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남도청에 이어 공항까지 무안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광주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광주공항 국제선은 필수

무안공항을 조기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미 양양공항에서 실패가 검증된 이 틀에서 저쪽 고이는 식의 방법은 안 된다. 건교부가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육성하려면 신규 노선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공급하고,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순리다. 이러한 노력 없이 겨우 자리를 잡은 광주공항 폐쇄 운운하는 것은 안이한 관료편의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광주공항을 살리면서 무안공항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광주와 전남의 갈등만 키우면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정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공멸하는 길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 시설

## 광주비엔날레 파행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광주비엔날레가 '신정아 까짜박사 파문'에 휩싸여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 9월 개막되는 제7회 비엔날레를 불과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행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비엔날레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광주비엔날레의 파행은 신정아씨 파문에서 시작했다.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정된 신씨가 까짜박사로 드러나면서 중도하차했고, '비엔날레호'의 선정적인 제안 이사장마저 신씨 임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 3개월째 공백상태다. 더욱이 우여곡절 끝에 총감독을 맡게 된 오우이 엔위저씨도 선임 4개월이 지나도록 행사의 일정은 물론 전시인력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비엔날레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주비엔날레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안 이사장 선임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현안을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감독체제에서 이 사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점도 이사장 선임이 마냥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지난 8월 '주제 없는 전시' 구상을 밝힌 이후 열굴조차 내밀지 않고 있는 오우이 총감독의 행보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오는 11월 말 입국해 전시 기본계획 등을 밝힌다고는 하나 이는 행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일정이 너무 촉박해 내년 비엔날레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엔날레에 차질을 빚으면 그 위상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광주뿐만 아니라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다. 내년 비엔날레까지는 시간이 없다. 광주시와 지역 미술계는 힘을 모아 비엔날레 재단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혁신도시 토지 보상이 현실화 필요하다

나주에 들어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주민 반발에 따른 토지보상 지지부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광주·전남

정했던 울산과 대구는 연말 등으로 연 기했고 이달 착공하려 했던 경남과 충북의 일정도 미뤄졌다.

토지보상률이 낮다고 해서 기공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계획 승인만 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보상이 절반 이상 이루어진 뒤 착공하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제력과 행정력 등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근본 취지다. 정부가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강조하며 기공식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주민 반발 등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나 기공식을 가진 곳은 제주와 경북 김천 등 2곳에 불과하다. 지난달 기공식이 예

정했던 울산과 대구는 연말 등으로 연기했고 이달 착공하려 했던 경남과 충북의 일정도 미뤄졌다.

토지보상률이 낮다고 해서 기공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계획 승인만 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보상이 절반 이상 이루어진 뒤 착공하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상률이 낮은 것은 보상이 불만과 미려에 대한 불안 등에 따른 주민 반발이 근본원인이다. 주민들은 보상을 돌려받고 마찰을 빚으며 보상금 수령과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보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상실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주단지나 전원마을 조성, 임대아파트 알선 등 지원책도 검토하기 바란다. 주민들도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펜클럽

정범도



나는 만혼으로 나이 권 둘에 중1, 고1 딸 둘을 둔 늦각이 가정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한 한국사회에서 50대부터 이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도 하고 더 나아가 여유가 있다면 포트폴리오 투자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그것은 두 딸에게 투자되는 사교육비 때문이다. 나의 큰 딸은 광주에 있는 공립예술고에 특기 장학생으로 다니기에 학교에 납부하는 학비는 거의 없다. 작은 딸도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학교에 다니기에 한달에 기숙사비 10여만원과 약간의 학

아니면 사립예술단 비정규직이나 예능 사교육시장 강사로 연명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한국사회를 패자부활전이 없는 승자독식의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라는 글로벌스탠다드 내지 IMF 컨디션의 강요에 의해 민간기업에서 정년과 연공서열은 파괴되었으며, 신규채용도 비정규직 위주로 채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한달에 100만원 내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된다. 교과서의 질과 양을 더욱 풍부

## 문제는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다

교 운영비 이외에는 학비부담이 가벼운 편이다. 그런데 한국적 현실에서 이것만으로 끝나는가?

나는 대학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보통시민이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갈려면 수능시험을 잘 보아야 하고 수능시험을 잘 보려면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해 과외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통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직장에서 임기를 1년 앞두고서도 정액연봉 6천여만원 중 3,600여만원을 나의 두 딸의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사교육비 투자액수도 서울 중산층 시민들의 사교육비용의 절반도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두 딸이 부모의 희망대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면 어떠한 현실이 부딪힐까? 모두 예능을 전공하고 있는 나의 두 딸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운이 좋으면 월급 100만원 내외의 국·공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뽑힐 것이고,

하게 하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고 대입시험 문제는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하면 된다. 20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승자독식의 몫을 나누고 일자리를 나눠서 정규직을 더 많이 뽑으면 된다.

승자독식의 미국식 경영을 채택한 과거의 세계 1위 SONY는 현재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고 일본식 정년보장 연공서열의 인간중심 경영을 펼친 TOYOTA는 오늘날 부동의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다. 이러한 사례가 오늘의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우리 20대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가는 광풍의 미국식 혁신이나 개혁 열풍은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한다.

바보들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패자부활전, 그리고 사람 중심이다. <광주시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 2006년 7월 수성자

# 기고

공유희



외국여행을 다녀온 한국인이 흔히 토로하는 불만 중 하나는 그네들의 야박한 '물 인식'이다. 무언가 남비하는 것을 '~ 물 쓰듯 한다'라고 표현하듯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물이 맑고 양도 많아 어디를 가더라도 물 인식만큼은 넘쳐났다. 따라서 여행중 식당에서조차 물을 사먹어야 하는 풍경은 이방인에게 '버들잎'을 띄워 물 한잔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물 인식이 그 나라의 일반적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이해는 성급하다. 그보다는 각 나라가 경험해 온 '수자원' 현실의 산물일지는 모른다.

한국은 강수량과 지하수가 풍부하며, 대량 수원이 국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다행스럽게 '물 부족' 또는 극단적 '물 분쟁'은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물 인식 역시 예전의 것은 아니다.

어르신들이 떠올리곤 하는 낯선 곳을 여행하다 인근 민가나 가게에 불췌 들어가 물 한잔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절은 더 이상 아니다. 한국에서 생수 시판이 합법화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1994년의 일이지만 물을 사먹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다.

지금까지 필자는 물 인심은 고유의 국민성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각국이 경

## 수자원과 물 인식

UN 환경계획에 따르면 지구에 있는 물 가운데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26%에 지나지 않고, 세계 인구 가운데 6명 중 1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가속화된 지구온난화는 지구촌 곳곳에 담수호의 고갈, 사막화, 해수침입 등을 야기했고, 물 부족의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의 보편적 문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심각성의 정도는 지역,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수심 킬로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보내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남유럽, 지중해, 북유럽, 중국내륙 등 세계 많은 지역의 수자원 현실은 우리의 의견과는 크게 다르다.

이런 점에서 한 나라의 물 인심이 그네들이 처한 수자원 상황을 반영하리라 여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합해은 수자원 현실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사회의 물 인식은 한 사회의 발전과 건강함의 척도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치수(治水)는 제왕의 일 중 가장 중한 것이었으며, 선정(善政)의 척도였다. 왜냐하면, 치수는 정치·행정·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에 기초한 뿐 아니라 물에 얽힌 다양한 지역, 계층 간 이해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물 인심은 단순히 그 사회의 물리적인 '수자원' 조건 뿐 아니라, 주어진 수자원을 효율적, 균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의 발전 정도, 그리고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인 건강함을 반영한다. 물은 인간 생명의 필수요건일 뿐 아니라, 동시에는 한 사회 및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건강함을 가능케 하는 척도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 해외 신혼여행 무심코 폐백과일 넣고 가단 낭패

얼마 전 캐나다 출장 중 현지에서 입국 수속을 받는데 앞서 가던 한 신혼부부가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무언가를 영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신혼 부부가 결혼식 뒤 폐백 때 부모님께 덕담과 함께 받은 대추와 밤이 문제가 된 것 같았다.

시아머니가 며느리에게 던져 주는 밤·대추를 그대로 가방에 넣어 신혼 여행을 갔는데 다른 나라 입국 과정에서 검역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농산물 검역 문제

등으로 통관 허가 없이는 외국 과일 등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알면서도 쉽게 생각하고 넘긴 탓이다.

한국 전통 결혼식 풍습이니 하면서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것이 통할 리 만무하다. 이 신혼부부는 입국 과정에서 공항 허가문에서 짐가방을 모조리 열어 헤치는 등 한차례 소동을 겪었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 폐백과일 무심코 가방에 넣어갔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종식·목포시 동명동

# 無等鼓

농촌에 대한 향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나 갖는 일반적 현상이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루어져 왔고, 산업의 근간이 농업이었기에 더욱 그렇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촌 드라마는 어느 TV 채널에서든 장수 프로로 자리매김했고, 늘 인기리에 방영되곤 했다. '전원일기'가 그랬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그랬다.

농촌 드라마는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늘 구수한 애기거리와 함께 향수를 달래주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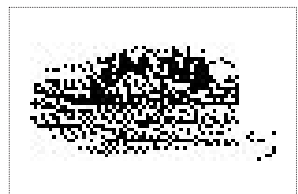
얼마 전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17년 만에 막을 내려 농촌 드라마가 사라진 상황이다. 그런데 그 후속 농촌 드라마 '산너머 남촌에는'이 제작돼 2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종영과 함께 다른 출발점에 선 '산너머 남촌에는'은 '전원 드라마'를 내걸고 새롭게 출발하는 작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20세기 농촌의 풍경을 그린 드라마였다면 '산너머 남촌에는'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21세기 농촌의 현실을 그린 드라마다. 제작진은 동남아에서 온 신부, 외국인 노동자, 귀농 가족 등 새로운 농촌의 현실을 적극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10년내 외국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 중심은 물론 농촌이다. 외국인 신부와 외국인 노동자 등 변화된 농촌현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 산너머 남촌



내국인의 삶을 밝고 따뜻하게 그려줬다는 덧붙임이다. 서울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가족의 농촌 적응기, 귀농한 초보 농부와 종갓집 막내딸의 사랑 이야기, 종갓집 며느리 3대 이야기, 베트남 신부를 얻은 시골 농부와 어린 신부 하녀의 신혼생활 등 다양한 사람들의 시골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고 한다.

'산너머 남촌에는'이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처럼 장수하며 FTA(자유무역협정) 파고를 넘어 뚝배기 맛 같은 고향의 향기를 도시의 안방에 물씬 풍겨 주길 기대한다.

/김우석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 맞은편 차량 운전 방해 불법 전조등 강력 단속을

마주 오는 차량의 강력한 전조등으로 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운전자들이 많다. 주로 값비싼 외국산 승용차나 스포츠카에 부착된 할로겐 라이트 때문인데 이를 부착한 차량들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주말 지방 출장 때 할로겐 라이트를 장착한 승용차의 불빛으로 운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커브길을 도

는 순간 강력한 라이트가 비추면서 앞을 볼 수 없었다. 2초 정도 지났을까. 순간 급정거를 했는데 멈춰보니 도로를 벗어나 갓길로 진입, 도로변 농로 배수지로 떨어질 뻔했다.

상대방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방해, 교통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光주시가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광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